

## “재벌 · 노무 적폐청산, 현대기아차 · 윤여철부터”

### 현대기아차 노무적폐 청산 총집결 투쟁대회... “계열사 사장, 양재동 눈치 보며 왜 똥폼 잡나?”

금속노조가 8월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본사 앞에서 ‘재벌 노무 적폐청산, 2017년 그룹사 공동요구쟁취,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노동자 총집결



은 “사측이 신입사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 개악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조를 위해 희생한 선배 노동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임금 개악안을 반드시 철폐시키겠다”고 결의를 밝혔

투쟁대회’를 열었다. 이날 파업을 벌이고 참가한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 등 그룹사 17개 지부, 지회 조합원 6천2백여 명이 참가했다.

조합원들은 대회 전 ‘편법승계 반대, 노무 적폐청산, 윤여철 퇴진, 성실 교섭촉구’ 등의 구호를 쓴 만장 1백여 개와 사원증을 확대한 팻말을 앞세우고 양재동 AT센터 앞에서 현대기아차그룹 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지부, 지회는 2017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진 원인은 현대차 윤여철 노무담당 부회장이 총괄하는 그룹사 노무관리 통제 때문이라고 보고, 그룹사 노무관리 적폐청산과 윤여철 퇴진을 요구했다.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 17개 사업장은 2017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단체교섭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김성락 기아차지부장은 “통상임금 투쟁 6년이다. 사측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작업장 해외이전 운운 협박하고, 법원에 신의칙을 적용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며 “법이 정한 통상임금을 때먹은 정몽구, 정의선 부자는 법을 지켜라. 노사관계 파탄 주범 윤여철은 당장 회사를 떠나라”고 꾸짖었다.

박유기 현대차지부장은 “비정규직 불법 파견, 일감 몰아주기, 원하청 지배개입, 불법 승계 등 대한민국 재벌의 모든 적폐가 양재동에 있다”며 “재벌개혁은 현대기아차그룹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장

다.

김중보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몽구, 정의선 일가의 재벌 적폐를 비판했다. “2001년 자본금 25억 원으로 시작한 현대차그룹 승계 핵심 고리 회사인 글로벌비스는 그룹사 일감 몰아주기로 2016년 매출 12조2천5백5억 원, 당기순이익 4천91억 원을 올렸다”며 “정의선은 글로벌비스 지분 23.3%로 그룹을 물려받으려 한다. 여러분이 부당한 재벌세습, 재벌 적폐를 막아달라”고 호소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에서 기아자동차 소하지회 풍물패의 큰북 공연과 현대차지부 몸짓패,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 연합 노래패가 차례로 공연을 선보이며 조합원들의 투쟁 열기를 높였다.

# “삼성은 2018년 최저임금 못 맞춘다” 대놓고 불법 예고 21일, 삼성 사용자성인정, 직접 교섭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지회, 교섭결렬 파업선언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노동자들의 울분이 울려 퍼졌다. 금속노조는 8월 21일 서울 서초동 삼성 본관 앞에서 ‘삼성자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직접교섭 촉구, 차별의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삼성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직접 교섭에 나서는 길이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작이고, 천민자본주의 상징인 무노조 경영의 허울을 벗는 길”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김상구 위원장은 “재벌개혁은 촛불의 명령이고 시대의 과제다. 하청,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 등 어떤 형태의 노동자라도 노동 3권을 보장받는 시점이 재벌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 김동엽 부지회장이 무대에 올라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우리 청년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수개월째 절규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라두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지회장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을 선포했다. 라 지회장은 “삼성이 올린 세계 최고 영업이익이 24조 원이다. 삼성서비스 노동자들 기본급은

138만 원”이라며 “삼성의 바지사장들은 교섭에서 2018년 최저임금에 맞출 수 없다고 한다. 삼성이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선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라두식 지회장은 “집중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7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삼성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회 몸짓패 ‘공구가방’은 열정 넘치는 몸짓 공연으로 비 맞은 조합원들에게 힘을 북돋웠다. 민중가수 임정득 동지는 가슴을 적시는 노래로 조합원들을 들었다. 지회 조합원들이 연단에 올라 ‘직접 교섭 쟁취,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주제로 상징의식을 펼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삼성 자본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민공동회’를 열었다. 만민공동회에서 S그룹 노사문건 채수사, 이재용 진짜 범죄 처벌 촉구, 산재은폐 엄중처벌, 부당징계 철회 촉구의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조합원들은 이재용 진짜 범죄 처벌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이날 일정을 마쳤다.

삼성서비스지회와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결의대회에 앞서 서울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앞 강남대로부터 삼성 본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개입해 국민연금에 손댄 중대 범죄자 이재용의 엄벌과 삼성이 직접 교섭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투쟁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얘기하지만, 중규직으로 고착화하려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진짜 사장 삼성 등 재벌이 직접 교섭에 나서도록 조치하라”라고 촉구했다.